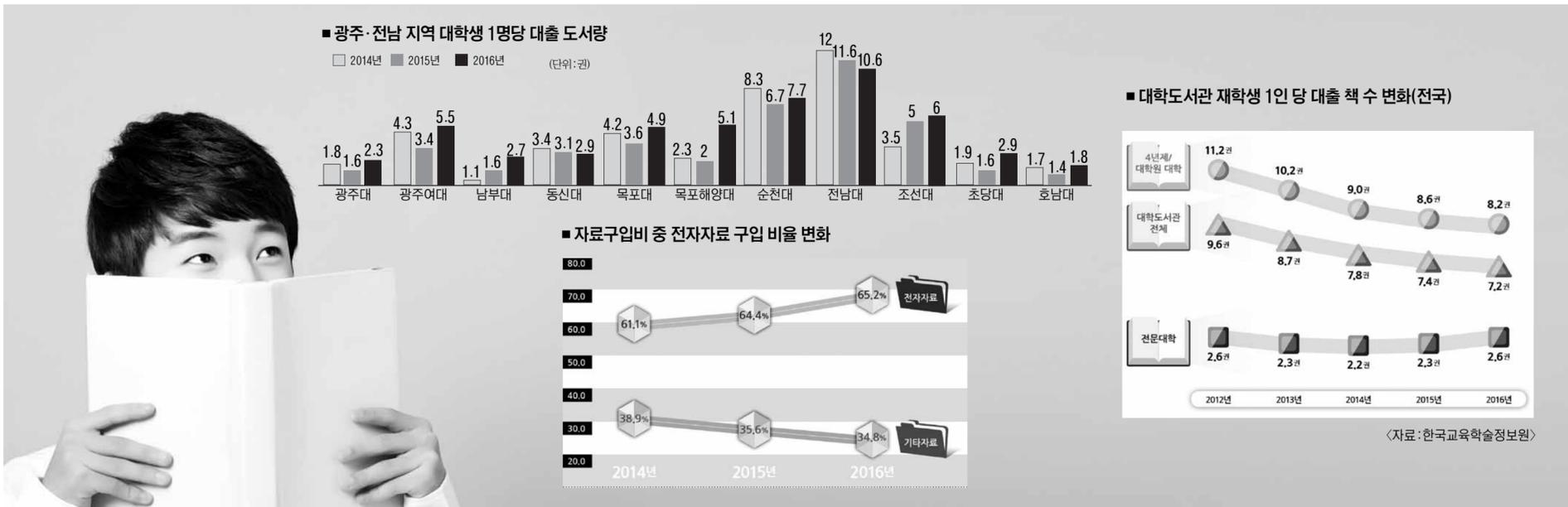


1년 도서대출 7.2권...책 안 보는 대학생들



2016 대학도서관 통계 분석

전남대 10.6권...대출량 줄어 호남대 1.8권...광주 4년제 최저 전자책 이용 증가 추세 '눈길'

전남대는 '광주·전남이 읽고 독하다'라는 독자 프로그램을 2013년 이후 5년째 진행 중이다. 시·도민이 직접 참여해 한 해 동안 읽을 책을 선정 한 뒤 함께 읽고 토론하면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담론(談論) 문화'를 조성해가는 취지다.

호남대는 올 해 대학 특성화 사업의 하나로 '점프 투게더 123 - 책 읽는 대학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확정, 참여할 독

서클럽 회원을 모집 중이다. 학교 공식 캠페인인 '점프 투게더 123 캠페인'에 '한 달에 3권 이상 독서하기'를 세부 실천 계획으로 포함할 정도로 '책 읽는 대학'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조선대는 독서토론클럽, 토론대회, 독서캠프, 독서골든벨, 지정 도서를 읽고 감상문을 쓰는 '북으로 통하다'와 책 속 배경지를 찾아 둘러보는 '북으로 떠나는 테마여행'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학교측이 나선다고 학생들 독서 열기가 달아오르는 건 아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눈을 떼지 못하면서 책에는 관심이 기울이지 않는다. 대학생들의 독서 기피는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대학들, 초라한 책 대출 현황=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13일 내놓은 '2016 대학도서관 통계분석집'은 책을 멀리하는 대학생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 대학생 1명이 대출한 도서는 평균 7.2권에 그쳤다. 대학생 평균 대출 도서는 10.3권(2011년)에서 9.6권(2012년)→8.7권(2013년)→7.8권(2014년)→7.4권(2015년) 등으로 끊임없이 줄어오고 있다. 지역 대학도 다르지 않다.

호남대 재학생 1명당 대출 도서는 1.8권에 불과하다. 전년(1.4권)에 비해 다소 늘었다고 하지만 다른 대학에 비해 책을 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신대는 학교 측 열정에 견주 학생들의 독서 열기가 따라가지 못한다. 지난해 재학생 1명당 대출 도서는 2.9권으로 전년(3.

1권)에 못 미쳤다. 총장이 학기별로 독서를 랍에 참여하면서 챙기더라도 역부족이다.

광주대와 남부대는 조금 늘었지만 자랑할 수치는 못된다. 광주대는 고작 1권(2015년 1.6권) 수준이던 재학생 1인당 대출 도서가 지난해 2.3권으로 증가했고 남부대도 2.7권(2015년 1.6권)으로 소폭 늘었다.

광주여대도 5.5권으로 2015년(3.4권)에 견주 증가했고 조선대도 6.0권으로 전년(5.0권)보다 늘었다.

전문대 학생들의 독서 무관심은 더 심하다. 서영대의 경우 재학생 1명당 대출 도서가 0.4권에 불과했고 목포과학대 0.5권, 전남과학대 0.8권, 조선간호대 1.7권 등으로 파악됐다.

△안 보면 보게해야=전남대 등 국립대는 학생들의 독서 문화를 조성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남대는 '광주·전남이 읽고 독하다'라는 독자 프로그램을 지속 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전남대의 지난해 재학생 1인당 대출 도서 수는 10.6권으로 지역 대학 중 가장 많다. 순천대는 지난해 재학생 1인당 7.7권의 책을 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6.7권)보다도 증가한데다, 광주·전남에서는 전남대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다.

순천대가 8가지 종류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마련, 학생들의 지속적인 독서문화 조성에 공을 들인 게 한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순천대는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셀럽' 추천도서, 영화를 테마로 한 도서전 등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전자책은 증가=최근 5년 간 전자책을 비롯한 상용DB 이용 건수가 급증한 점

은 눈길을 끈다.

지난해 재학생 1명이 이용한 전자책 등 상용 DB는 180.4건으로 5년 전인 2012년(84.7건)에 견주 2배 이상 증가했다.

교육학술정보원은 특히 재학생 1인당 전자자료 등 상용 DB 이용 건수가 92.3건(2013년)→99.4건(2014년)→139.2건(2015년)→180.4건(2016년)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학생들이 일반적인 도서를 대출하는 대신, 전자책으로 바뀌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학생들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대학 도서관의 최근 3년 간 자료 구입비 중 전자책 등 전자자료 구입 비율도 61.1%→64.4%→65.2%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내년 의·치대 학사편입생 681명 선발

전남대와 조선대를 비롯, 전국 27개 대학이 '2018학년도 의·치대 학사편입학' 전형에서 681명을 선발한다.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학년도 의·치대 학사편입학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를 비롯한 22개 의대(585명)와 연세대·경희대 등 5개 치대(96명)가 편입생을 선발한다.

대학별 의·치대 학사편입학 모집인원은 전남대(37명·의학), 조선대(37명·), 가톨릭대(28명·), 경희대(33명·), 전북대(33명·), 조선대(24명·치의학) 등이다.

의·치대 학사편입학은 전문대학원의 의·치대 체제로 돌아감에 따라 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자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부모와 친인척의 성명·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

대학별 모집요강은 원서 접수 시작 3개월 전인 올해 6~7월 각 학교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께 확정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18학년도 의대 학사편입생 인원

전남대	조선대	가천대	가톨릭대
37	37	12	28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고려대
33	23	33	32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15	37	40	12
이주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12	33	23	23
인하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15	33	26	33
충북대	한양대	22개교 총 585명	
15	33		

전남도교육청 전교조 전임 허용 취소

전남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 전임자를 허가했다가 1주일 만에 취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 반대가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전교조 간부의 전임을 허가해놓고 곧바로 취소하는 행정으로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전교조 전남지부의 수석부지부장과 사무처장을 1년간 전임자로 허가한 지 1주일 만인 지난 10일, 관련 허가를 취소했다. 상급기관

인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교육부는 앞서 법외노조로 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에 대해 전임자를 허가한 것은 위법하며 전교조 전임자 허가 사항은 국가 위임사무임을 들어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전교조 요구를 무턱대고 수용했다가 끝이 교육부 입장을 내세워 거부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무책임한 행정을 펼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교육단신

- 16일 돌봄교실 정책토론회**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6일 광주교육과 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 4차 산업혁명 교육 학부모 콘서트**
교육부는 오는 4월 4일 오후 2시부터 순천대 70주년 기념관에서 학부모 콘서트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의 인재상과 교육정책의 방향, 바람직한 자녀교육법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싱! 퀸

CHANNEL A **매주 금요일 밤 11시**

이수근 강성연 김희철 문희준 최성국 김태우 한석준